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Korea Research Center for Overseas Construction

<Quarterly Report>

해외건설 인사이트(INSIGHT)

[2020 – Vol. 1]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해외건설협회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 목 차 -

I.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1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1
2. 지역별 시장 동향	2
3. 공종별 시장 동향	5
II.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9
1. 거시지표	9
2. 글로벌 PF 시장 동향	12
3. 글로벌 PPP 시장 동향	13
III. 해외건설 수주 진단	17
1. 수주추이 및 특징	17
2. 지역별 수주 동향	18
3. 공종별 수주 동향	19
IV. 정책제언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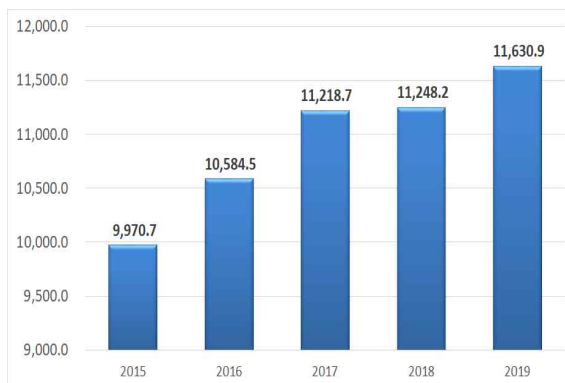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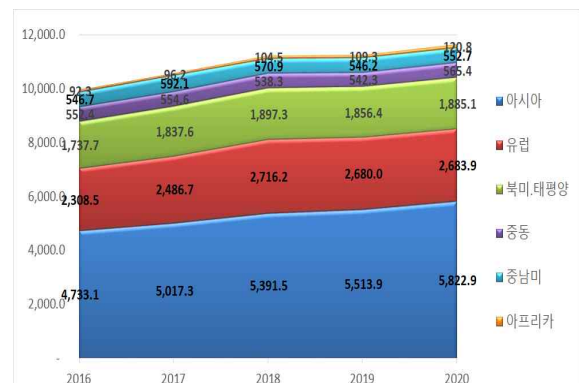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 '20년 세계 건설시장은 '19년 대비 3.4% 성장하며 11.6조불 기록 전망 (IHS Markit '19.12)
- 세계 경제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동발 리스크 등 불확실성 하에서, 아시아·아중동이 글로벌 건설시장 견인 예상
 - * '20년 지역별 시장규모 : 아시아 5.8조불(전년대비 5.6%↑), 중동 0.6조불(4.3%↑), 아프리카 0.1조불(10.5%↑), 북미·태평양 1.9조불(1.5%↑), 중남미 0.6조불(1.2%↑), 유럽 2.7조불(0.1%↑) 수준
- 공종별로 건축(6조6,050억불, 57%)-토목(2,659억불, 23%)-플랜트(2,367억불, 20%) 순으로, 인프라 중심 부양책 및 국경·지역간 연결노력 확대로 토목이 전년대비 5.6% 성장 예상 * '20년 공종별 성장률 : 건축(3.0%), 플랜트(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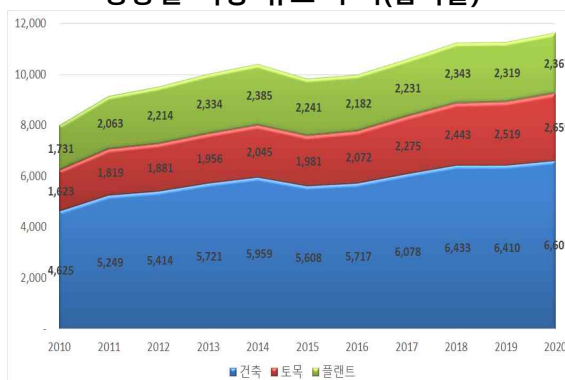
- 세계건설시장(십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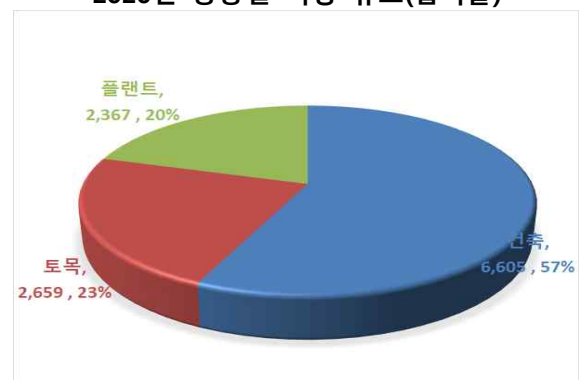
- 지역별 시장 규모(십억불) -



- 공종별 시장 규모 추이(십억불) -



- 2020년 공종별 시장 규모(십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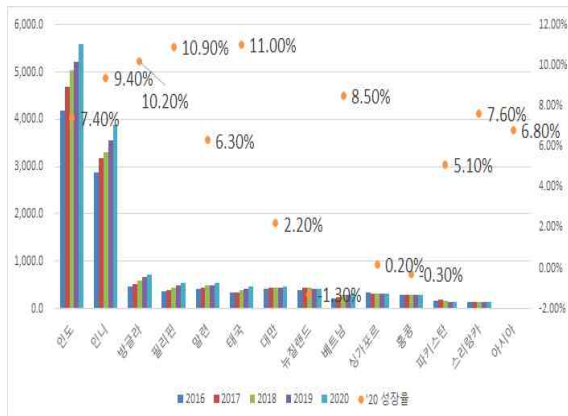


* 출처: IHS Markit('19.12) / 공종 재분류

2. 지역별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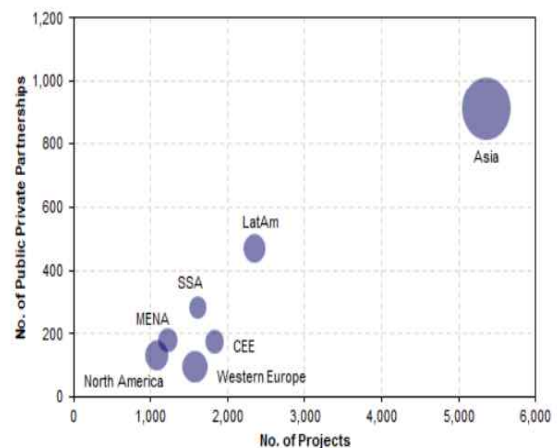
- (아시아) '20년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는 5.8조불(전년대비 5.6% 성장)로
인니, 방글라,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등이 성장예상(IHS Markit)
 - ADB의 역내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구축지원과 일본의 ASEAN 지역 차관확대 등 MDB·양자차관의 인프라 지원기조가 성장 뒷받침
 - 아시아에서 추진 중인 PPP 사업은 세계 최대인 800~900건으로,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카자흐 등이 시장 주도 전망(BMI)
 - 인도네시아(수도이전), 싱가포르(안정적인 대형 프로젝트 발주), 말레이시아(대규모 토목사업 재개모드), 중국(일대일로 사업 대규모 투자 지속) 등 국가별 시장유인책 중심으로 시장전개 예상
 - 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부채(Debt trap) 증가, 주요 국가들의 선거* 후 사업철회 결정 등의 리스크 상존
 - * 미얀마 총선(11월), 싱가포르 총선(3월), 스리랑카 총선(12월), 홍콩 입법회(9월)

-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 및 '20년 성장률 전망 -



* 출처: IHS Markit('19.12)

- 지역별 추진중 PPP 사업 규모 -



* 출처: BMI Key Project Database('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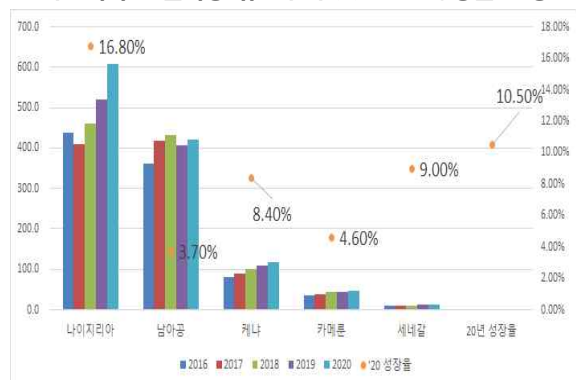
- **(중동)** '20년 중동 건설시장 규모는 약 5,654억불(전년대비 4.3% 성장)로 이집트, UAE, 카타르 등이 성장 견인 예상(IHS Markit)
 - 중동 건설시장은 ①“원유→석유화학” 사업 다각화, ②스마트시티·경제 특구 프로젝트 확대, ③신재생 비중 확대 등 탈석유를 중심으로 추진
 - 국가별로는 사우디(탈석유 최전선, 기간산업 구축), UAE(2020 엑스포), 카타르(2022 월드컵), 이집트(경제개혁·대형 인프라 계획) 등이 역내 시장 선도 전망
 - 한편 터키(미국의 제재 등 경제 위기), 이란(미국 제재 장기화), 이라크(반정부 시위) 등 역내 정세불안 요소 존재
- **(아프리카)** '20년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는 1,208억불로 전년대비 10.8% 성장 전망(IHS Markit)
 - 사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LNG 등 산업설비 중심으로 성장 예상
 - 역내 국가 간 연결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및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 지대(AfCFTA) 출범('19.5.30)에 따른 건설수요 창출 예상
 - * North - South Power Transmission Corridor(60억불), Central African inter-capitals connectivity(8억불) 등

- 중동 건설시장 규모추이 및 '20년 성장률 전망 -



* 출처 : IHS Markit('19.12) / 국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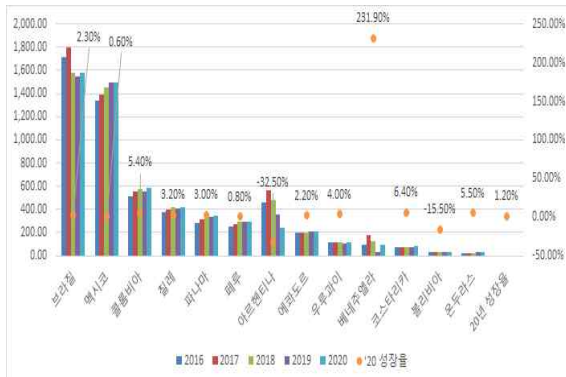
-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추이 및 '20년 성장률 전망 -



- **(중남미)** '20년 중남미 건설시장 규모는 5,527억불로 전년대비 1.2% 소폭 성장 및 코스타리카,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등이 성장 주도 예상(IHS Markit)

- 지역개발은행인 IDB, CAF 및 WB 등 MDB 지원, 양자차관 및 PPP 중심으로 인프라 건설시장 전개 예상
- 역내 핵심국인 브라질은 '20년을 기점으로 주택건설시장 및 에너지·교통 분야 투자회복 전망*이며, 멕시코는 정부의 인프라투자가 '20년에 본격화되면서 철도·정유공장** 분야 중심 추진 전망
 - * 브라질, 투자협력프로그램(PPI) 일환 Ferrograo 철도(30억불), 발전소 등 57개 사업, 190억불 규모 사업추진중
 - ** 멕시코, 삼성ENG의 Dos Bocas 정유공장 EPC 수주(25억불) 및 마야철도사업(Tren Maya)도 추진(60~80억불, 사업초기단계) 기대
- (북미·태평양) '20년 북미·태평양 건설시장 규모는 1조 8,851억불로 '19년 마이너스 성장(-2.1%)에서 탈피해 1.5% 성장 전망(IHS Markit)
 - 美트럼프 대통령의 1.5조불 인프라 투자 계획의 본격추진이 예상되며 노후 인프라 개선*을 포함한 PPP 사업이 부각될 전망
 - *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터미널 확장(85억불) 및 뉴욕 JFK공항 확장(130억불) 등

- 중남미 건설시장 규모추이 및 '20년 성장률 전망 -



* 출처 : IHS Markit('19.12) / 국가 재구성

- 북미태평양 건설시장 규모추이 및 '20년 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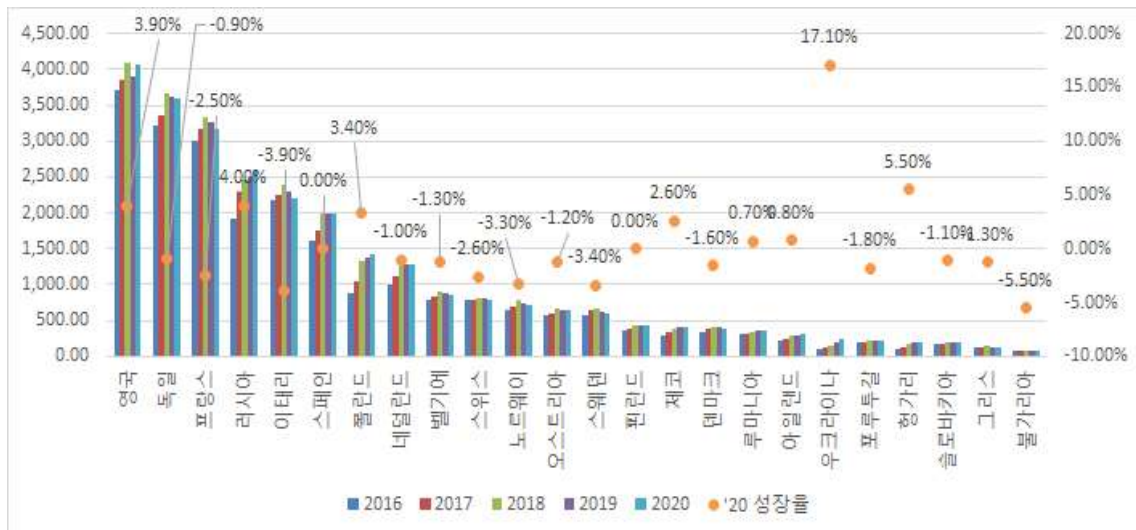


- (유럽) '20년 유럽 건설시장 규모는 2조 6,839억불로 전년대비 완만한 성장(0.1%) 예상(IHS Markit)
 - 서유럽 최대 건설시장인 영국은 브렉시트가 1.31일 발효됨에 따라 건설 투자 연기 또는 취소 가능
 - * 전국에 연간 3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20년 중반까지 총 570억 달러 투자
 - * '50년까지 탄소 무배출 국가를 목표로 '국가재생에너지 실천계획'을 추진
 - * '28년까지 총 5개의 원전 운영이 중단될 예정으로 추가 원전 건설 추진

- 러시아는 '2030년 카스피해 항만 개발', '2024 주요 인프라 현대화 및 확대에 대한 종합플랜' '2024년 에너지 프로그램' 등 교통인프라·발전소·석유화학 설비 사업을 지속 추진

- * Meridian Highway 프로젝트('19.7월 승인, 2,000km, 93억 달러)
- * Black Sea Ring Road 사업(설계 단계, 600km, 10억 달러)
- * Moscow - Kazan 고속철도(210억 달러, PPP 방식, 검토 단계)
- * Ural 고속철도(220km, 45억 달러, '21년 착공 계획)

- 유럽 건설시장 규모추이 및 '20년 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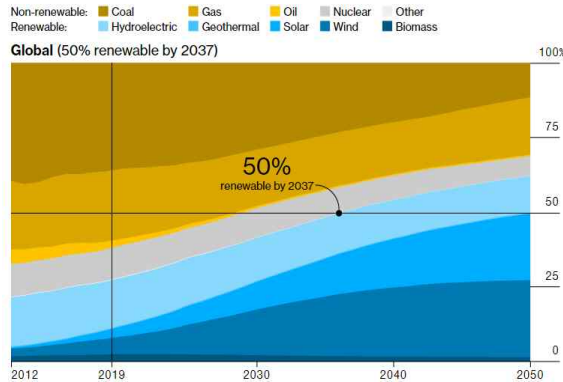


3. 공종별 시장 동향

○ 플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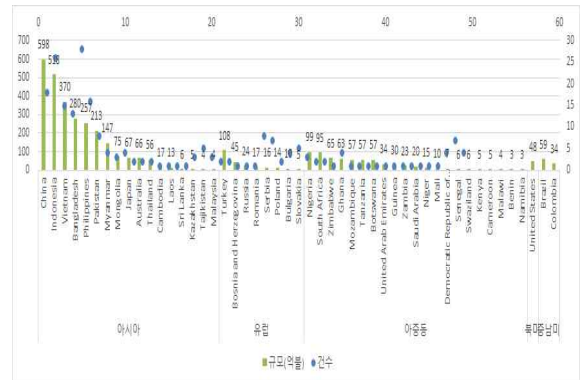
- (발전) 탈 석탄 기조 확산에 따라 대체재인 LNG·신재생 발전 사업 확대 및 선진국 중심으로 청정석탄 발전기술* 개발 중심 전개 예상
 - * CCS : Carbon Capture Storage(이산화탄소회수저장기술) / 우리나라 현재 연구단계
 - * 현재 운영중인 CCS 설비는 미국, 일본, UAE 등 18기
- (석유&가스) 공급초과 및 정유부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주 관망 전망 및 고부가 석유화학설비* 계획은 지속예상
 - * COTC(Crude Oil to Chemicals) :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통합 석유 생산 최소화, 석유화학 생산 최대화
 - * 중국, 브루나이, 사우디 등에서 총 5개 COTC 프로젝트 추진 중

- 발전연료별 비중 추이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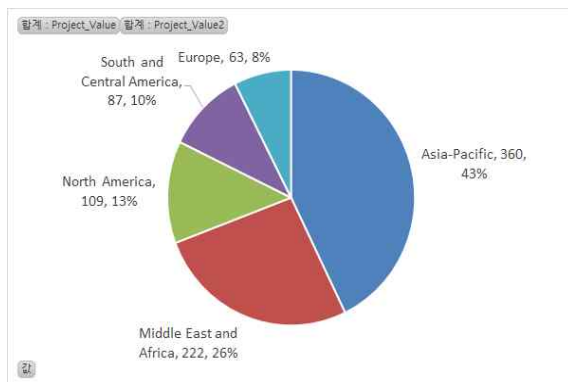
* 출처: Bloomberg('19.9)

- 지역별/국가별 석탄발전 계획 규모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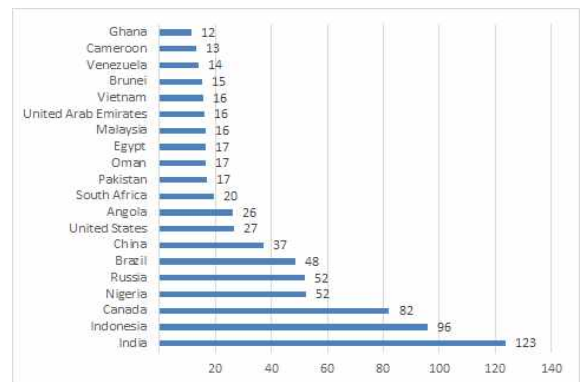
* 출처: Global Data('20.1) / 인도 제외(1895억kW, 94건)

- 세계 정유설비 지역별 계획 규모 -



* 출처: Global Data(2020.1)

- 정유사업 계획 상위 20대 국가 현황(십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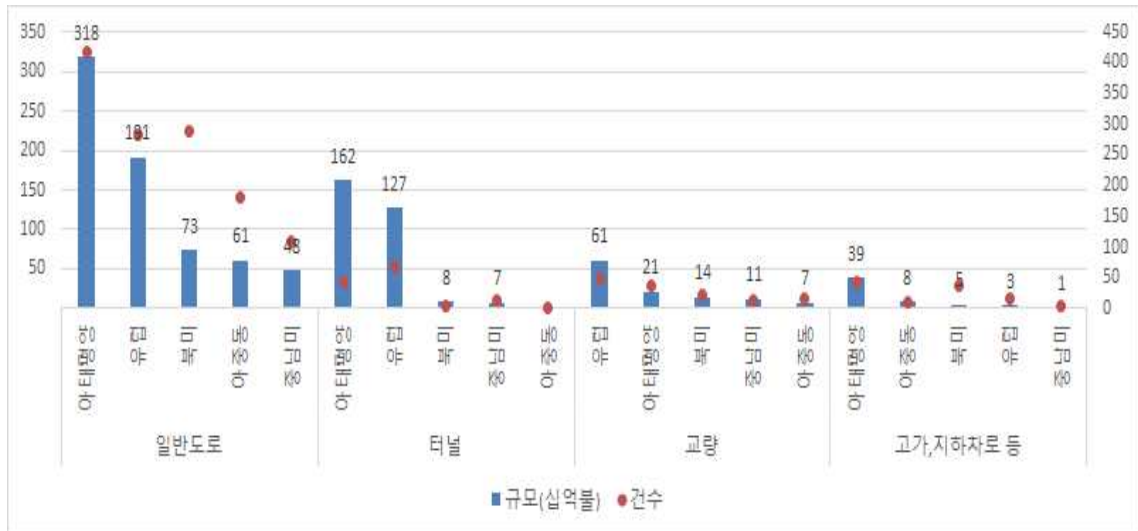


○ 토목

- (도로) 주요 전략공종인 특수터널 및 교량 부문은 유럽·인도·싱가포르 등 선진국·경제대국·인구고밀도 국가 중심 추진중
 - * (터널) 중국, 영국, 노르웨이, 호주, 인도, 인니 등 활발
 - * (교량) 러시아, 미국, 브라질, 사우디, 호주, 베트남 등 활발
- (철도) 최근 10년간 최고 활황으로 역내 연결 및 고속철 중심 추진, 지하터널·교량 패키지가 포함된 메트로는 아시아(호주·인도·싱가포르·방글라) 및 아중동(사우디·쿠웨이트)에서 활발히 추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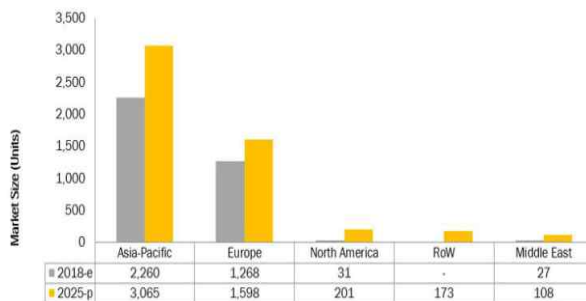
- (공항) 국부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로 점차 대형화·패키지화 추세로 미얀마, 베트남, 인도, 네팔, 인니, 사우디, 에디오피아 등에서 추진중

- 세계 도로 공종별/지역별 계획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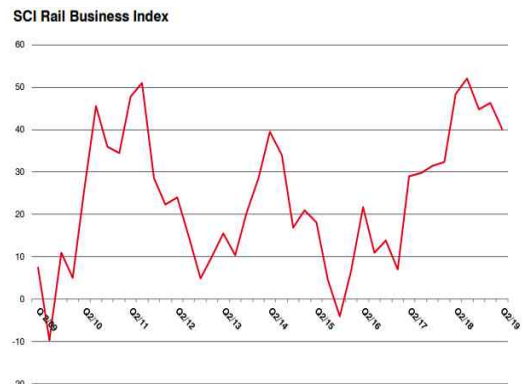
* 출처: Global Data(2020.1)

- 세계 고속철도 시장 규모(차량개수) -



* 출처: Global Railway Review('19.11.13)

- SCI 철도시장 인덱스 현황 -



* 출처: SCI Verkehr GmbH(2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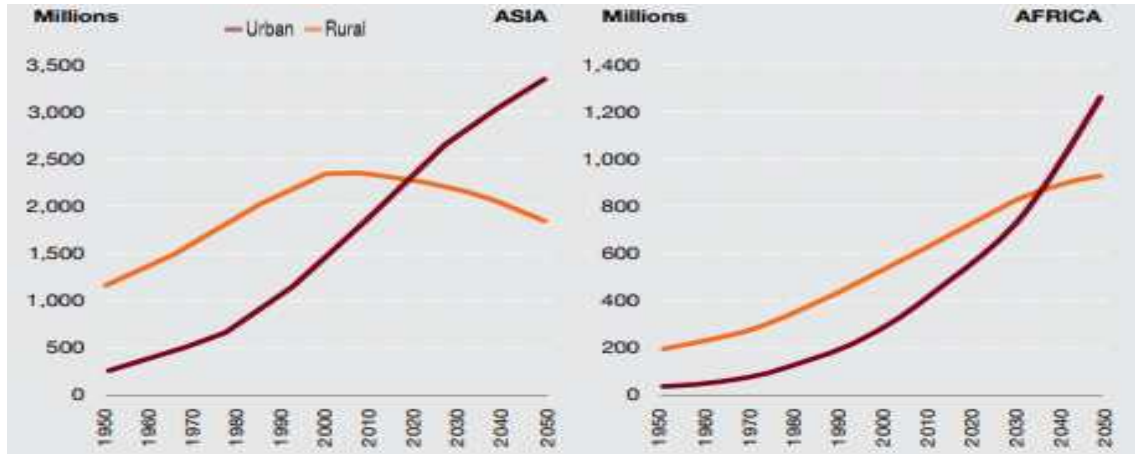
○ 건축

- (스마트시티) 선진국은 민간 IT 업체 주도의 도시관리·운영 종합 솔루션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 심화가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는 국가별 경제여력에 따라 전통적 도시개발과 IT 솔루션의 혼용추진
- (부동산개발) 글로벌 경제 불안정으로 안정자산 선호도가 확산됨에 따라 싱가포르, 홍콩 등 역내 허브국가 중심으로 상업건축 프로젝트

발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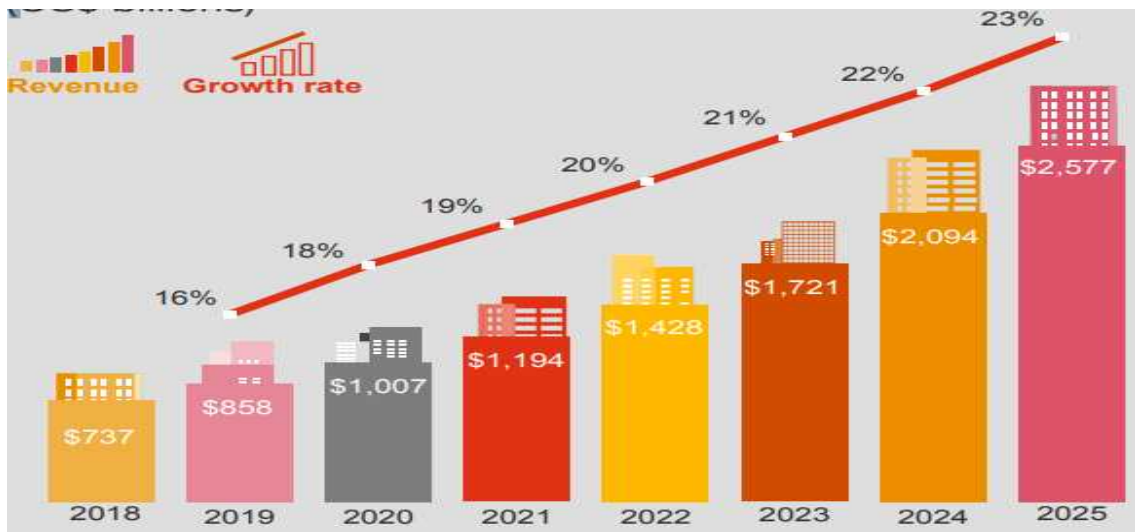
* 경쟁적으로 추진되었던 랜드마크성 건축 프로젝트는 일시 정체 예상

- 아시아-아프리카의 도시인구 추이 -



* 출처: Real Estate 2020, PwC(2014)

-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 전망 -



* 출처: "Smart Cities Market Analysis & Segment Forecasts to 2025"(2018)

II.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1. 거시지표

- (GDP 성장률) IMF에서는 '20년에는 3.3%(10월 비 - 0.1%), '21년에는 3.4%(10월 비 -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전의 전망치로 20년과 21년의 GDP 성장률 예상치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 '1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19.10) 3.0%에서 2.9%로 0.1% 하향 조정 한 바 있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역과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경기의 하방압력은 커질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GDP 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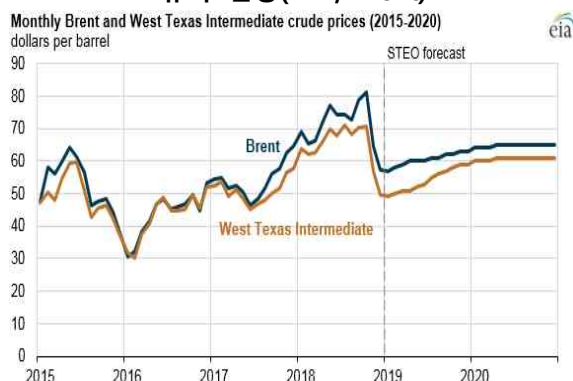
기준년도	'18	'19(E)	'20(F)	'21(F)
세계경제 성장률	3.3%	2.9%	3.3%	3.4%
선진국경제 성장률	2.2%	1.7%	1.6%	1.6%
신흥국경제 성장률	4.5%	3.7%	4.4%	4.6%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Update ('20.1)

- (국제유가) '20년 유가는 초과공급·저성장 등 하방요인과 이란·리비아 등 중동발 리스크 및 감산기조 확대 등 상승요인 혼재로 전년대비 소폭 오른 50불 후반~60불 초반대 예상(WIT기준/배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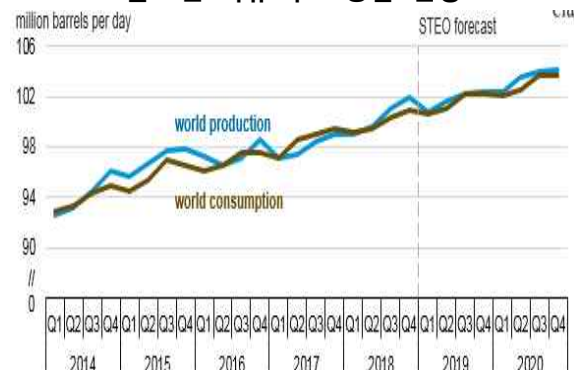
* 美IEA('20.1), WTI 59.25불/배럴(현물평균), 브렌트 64.83불 전망

- 유가 전망(WTI, Brent) -



* 출처 : EIA('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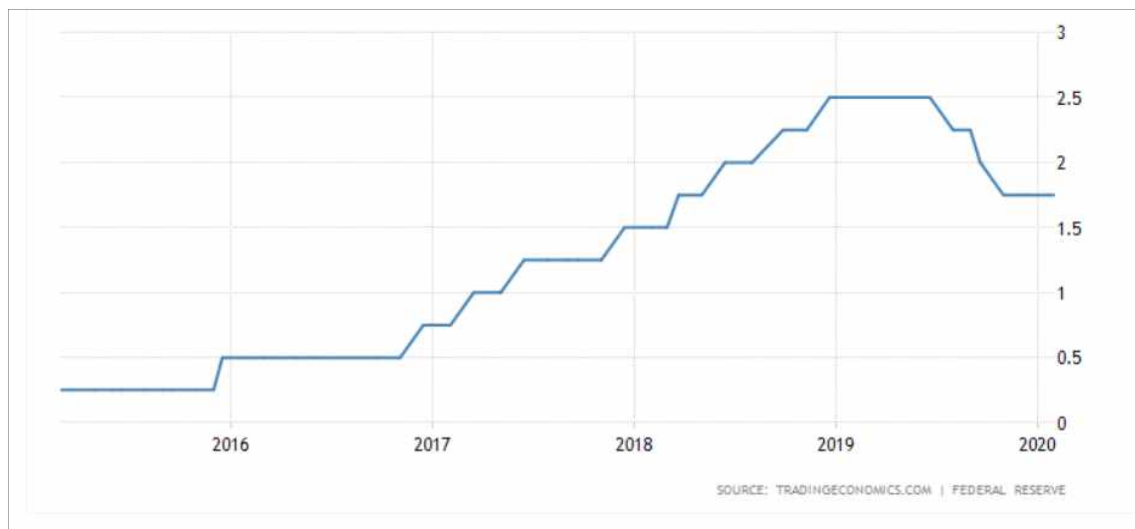
- 글로벌 석유 수요·공급 전망 -



○ (미국 기준 금리) 미국 기준 금리는 1.50~1.75%를 유지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19년 10월말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이후, 2차례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며,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일자리 여건에 대해 자신감을 표함

- 미국 기준 금리 추이 -



-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제시하며 FRB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일반적으로 미국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경우, 신흥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영향이 건설투자로 이어질지 여부는 해당국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로 이어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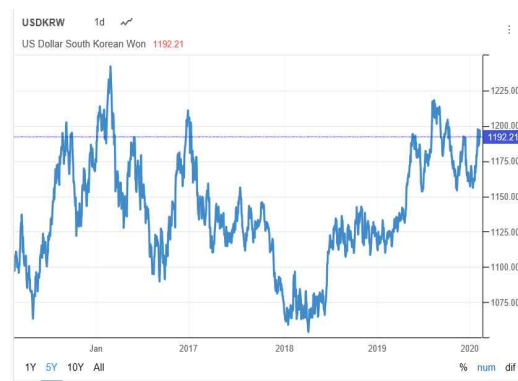
- **(환율)** 달러 인덱스(DXY, Dollar Index)는 2018년 초부터 상승추세가 나타나면서 96~9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150원 이상으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음
-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해외 수주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프로젝트 생애 주기(Life cycle)을 고려할 때, 계약 통화, 기자재 구입 등 비용지출시 통화의 종류 등 프로젝트별 상황에 따라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음
- 또한 유럽 기업들의 수주 경쟁력 향상과 관련하여 인도 내 엔지니어링 센터 운영을 통한 원가 절감과 더불어 유로화 약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있으나 경쟁기업의 자국 통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가 수주 경쟁력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주요 환율 추이 -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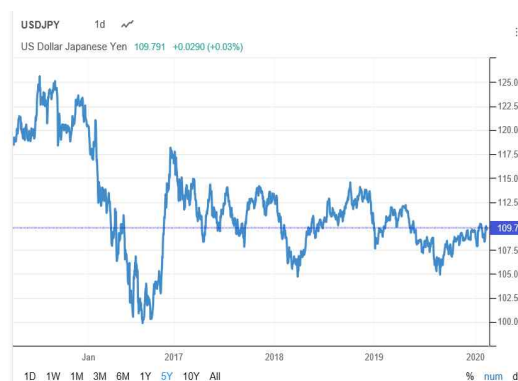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달러유로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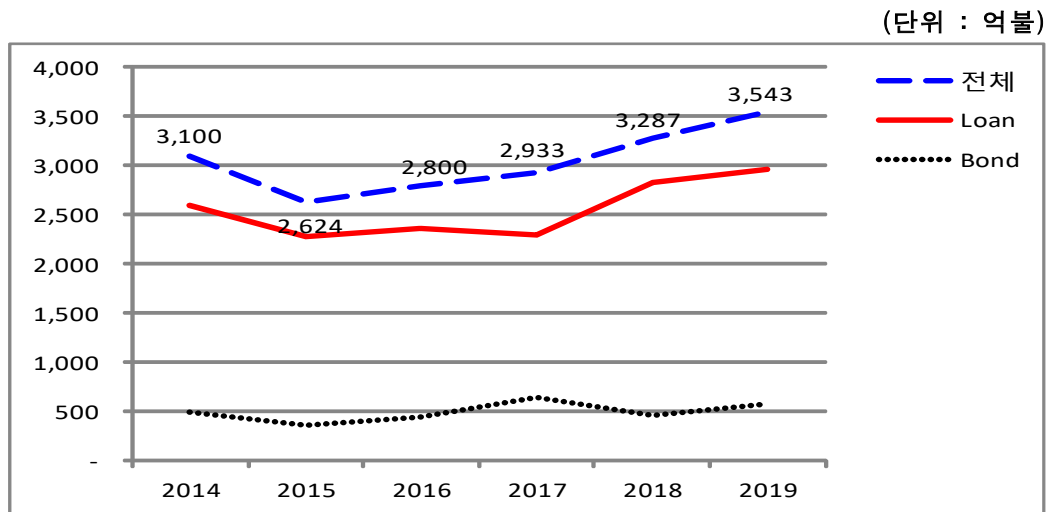
[엔달러 환율]



2. 글로벌 PF 시장 동향

- 2019년 글로벌 PF시장의 규모는 2018년의 3,287억불에서 7.8% 증가한 3,543억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출처: PFI, 2019 League Table)
- 프로젝트 Loan은 전년대비 5% 증가한 2,966억불이며, Bond는 577억불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나,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

- PF 시장 규모 추이 -



* 출처 : PFI, 2019 League table

- 최근 3년 동안 전체 Loan의 47.5%가 Power 섹터에 투자되고 있으며, 상위 3개 섹터에 대한 편중현상(84.6%)이 지속되고 있음

- 섹터별 Project Loan 규모 추이 -

(단위 : 백만불)

Sector	2017	2018	2019	계	비중
Power	122,813	137,627	123,574	384,014	47.5%
Oil and Gas	37,665	54,069	62,655	154,389	19.1%
Transportation	42,359	50,514	52,620	145,493	18.0%
PPP	9,052	13,288	8,878	31,217	3.9%
Petrochemicals	2,408	3,537	17,175	23,120	2.9%
Mining	3,993	7,632	9,876	21,500	2.7%
Telecommunications	2,073	7,391	7,331	16,795	2.1%
Industry	7,198	2,705	5,266	15,169	1.9%
Water and sewerage	1,708	4,790	8,665	15,162	1.9%
Waste and recycling	286	1,133	569	1,987	0.2%
Total	229,554	282,684	296,608	808,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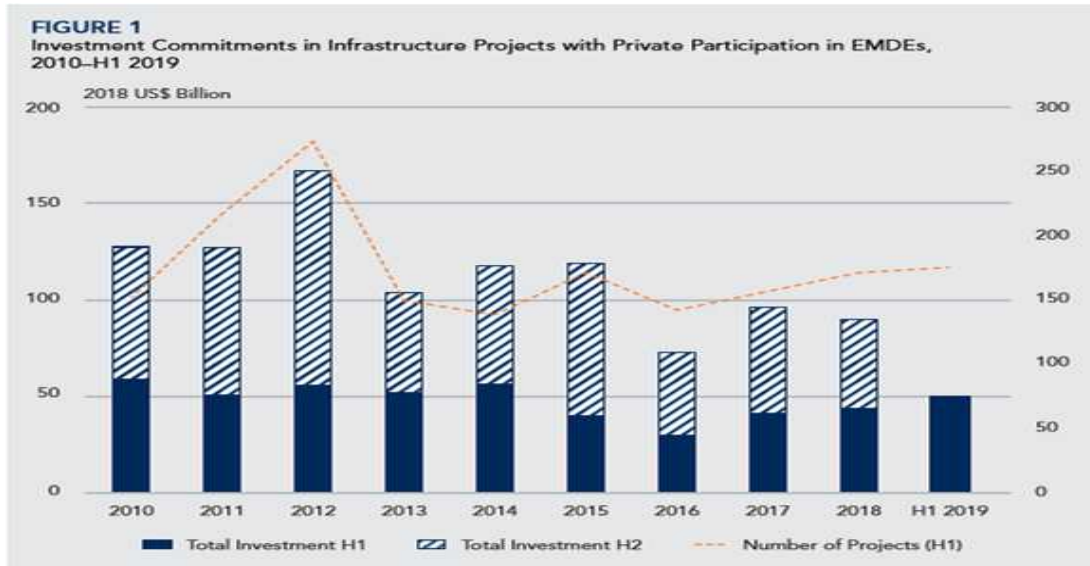
* 출처 : PFI, 2019 League table

- PF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수요대비 부족
 -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지난 5년 동안 인프라 프로젝트나 관련 회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5천억불 이상 유입되었으며 이를 일반적인 채권/주식비율(75:25)을 적용해서 생각하면 인프라 프로젝트나 관련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은 약 2조불로 추정
 - 맥킨지에서는 향후 15년 동안 전 세계적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약 57조불로 예측하고 있음
 - 이러한 불균형의 첫 번째 이유는 긴급한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소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제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투자자들이 모두 특정지역 및 리스크 프로파일을 충족하는 제한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기 원하기 때문
 - *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투자제약, 두 번째 이유는 기관투자자들의 herding effect
 - * 출처 :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Yearbook 2019

3. 글로벌 PPP 시장 동향

- 전 세계 PPP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WB 및 Infra PPP의 데이터에 따르면 PPP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 국가별 혹은 전체 PPP 시장의 규모를 집계/발표하는 곳이 없음
- WB의 PPI(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는 175개 프로젝트에 498억불이 투자약정 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상반기 투자금액 평균인 422억불 대비 높은 수준으로 12년 고점을 찍고 하락하던 PPP 프로젝트가 16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 가능(출처: PPI Database Global Report, H1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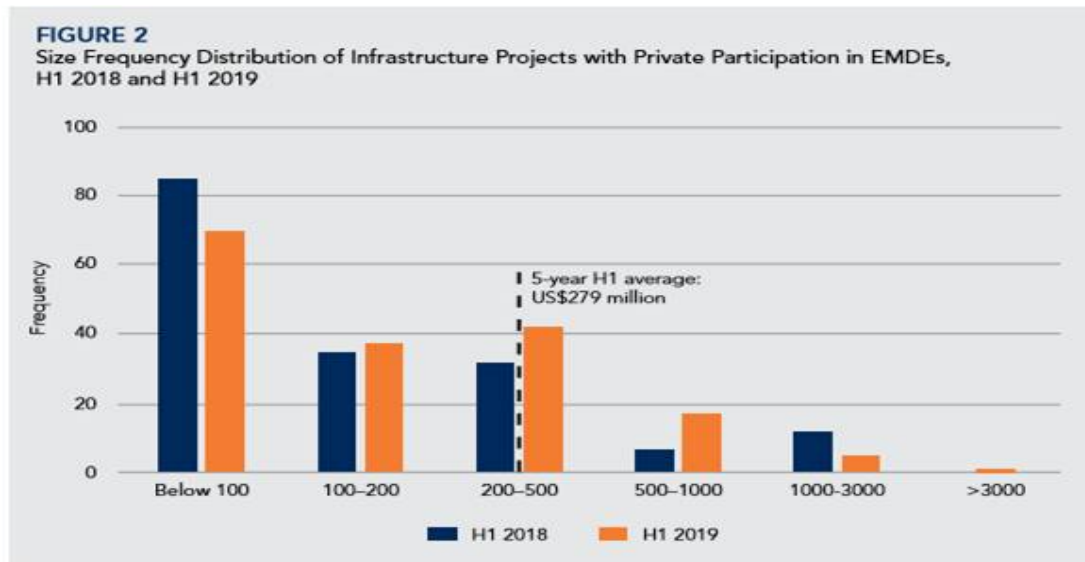
- EMDE 지역 PPI 투자 추이 -



* 출처 : WB, H1 2019 PPI

- 19년 상반기에만 이미 18년 전체 투자의 55%를 달성하며, 18년 대비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 높음
- 프로젝트의 갯수도 중국(특히 도로) 프로젝트의 증가(1H18 41개 → 1H19 60개)에 의해 최근 5년 상반기 평균(155개)에 비해 13%증가

- 프로젝트별 평균 투자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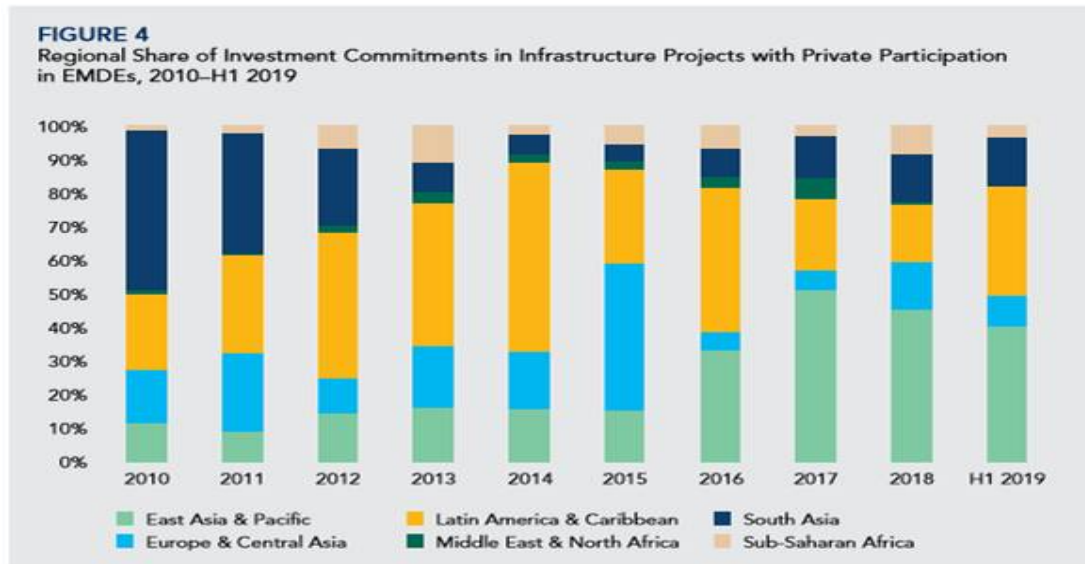
* 출처 : WB, H1 2019 PPI

- 19년 상반기 프로젝트의 평균 규모 및 중앙값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평균은 브라질의 초대형 프로젝트(페트로브라스의 천연가스 86억불)가 포함되어

왜곡될 수 있으나, 중앙값도 상승(1H18 100백만불 → 1H19 139백만불)하며 프로젝트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 가능

* 1억불 미만의 프로젝트 비중 감소(1H18 50% → 1H19 41%)

- 지역별 프로젝트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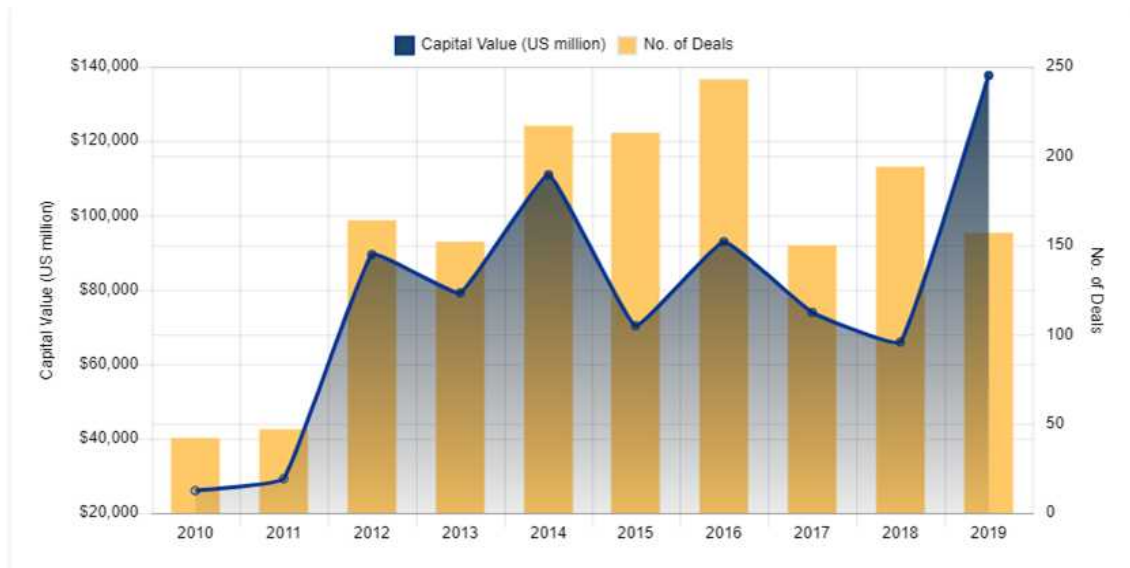


* 출처 : WB, H1 2019 PPI

- 동아시아&태평양(EAP) 지역의 비중이 전체의 40%를 차지
-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LAC) 지역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며, 점유율이 32%로 증가(1H18 17%)
- 남아시아(SAR)는 17년 이후 회복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들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
- 국가별 상위 5개국은 중국(60개, 167억불), 브라질(12개, 190억불), 인도(24개, 47억불), 러시아(7개, 26억불), 필리핀(5개, 18억불)이 차지
- Infra PPP에 따르면 2019년 낙찰 및 계약된 프로젝트 규모는 약 1,377억불(157건)로 2010년 이후 최고치 기록*

* 2014년 1,109억불을 기록한 이후 4년간 1,000억불 하회

- 최근 10년 프로젝트 투자 추이 -



* 출처 : Infra PPP (20.2.5 기준)

주) Infra PPP 데이터베이스는 2010년부터 데이터 제공

프로젝트 투자의 계절성 분석

데이터 분석의 주기(연, 분기)를 결정하기 위해 계절성 분석을 실시

[분기별 프로젝트 수 현황]

연도	1Q	2Q	3Q	4Q
2010년	16	8	9	9
2011년	6	14	14	13
2012년	39	42	43	40
2013년	32	39	29	52
2014년	46	64	53	54
2015년	42	45	49	77
2016년	59	87	58	39
2017년	28	29	45	48
2018년	42	53	34	65
2019년	57	21	39	40
계	367	402	373	437

[분기별 순위]

연도	1Q	2Q	3Q	4Q
2010년	1	4	2	2
2011년	4	1	1	3
2012년	4	2	1	3
2013년	3	2	4	1
2014년	4	1	3	2
2015년	4	3	2	1
2016년	2	1	3	4
2017년	4	3	2	1
2018년	3	2	4	1
2019년	1	4	3	2
계	4	2	3	1

Infra PPP에서 제공되는 10년간 계약 체결된 프로젝트의 계절성을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 수는 4→2→3→1 분기 순으로 나타남

III.

해외 수주실적 진단

1. 수주추이 및 특징

- (추이) 해외건설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4년 이후 미미한 등락을 보이면서 감소 추세

* 연도별 총 수주액/총 건수

- 2019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223억불로 2018년 약 321억불 대비 약 30% 급감
- 수주 프로젝트 단위 규모도 2010년 약 1.2억불에서 2019년에 약 0.3억불로 감소해 중소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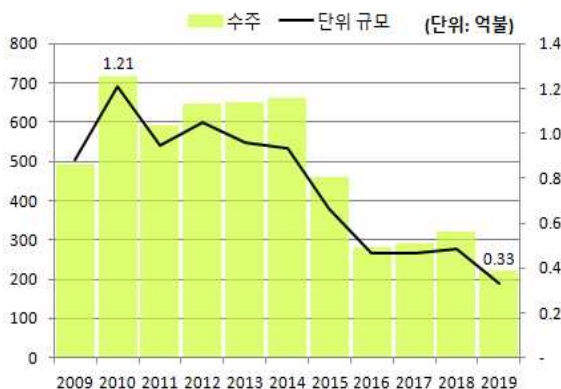
- (특징) 최근 5년간 평균 수주액은 약 315억불로 개발형 프로젝트 수주 증가 및 내실화 경향 뚜렷

- 최근 단위 프로젝트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로 대형 손실공사보다 중소형 내실공사 수주 패턴으로 전환되었으며 중견&중소기업 수주비중 증가*

* 중견&중소기업 수주비중 추이: 2017년 7.4%→2018년 10.7%→2019년 19.9%

- 최근 들어 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비중 증가추세(2016년 0.3%→2019년 8.2%)이나 90%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도급형 수주 경쟁력 시급

- 지난 10년간 해외건설 수주 추이 -



- 지난 10년간 발주형태별 수주 추이 -



2. 지역별 수주 동향

- **(아시아)** 아시아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3년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감소 추세이며 합작비중도 2019년에 들어와 급격히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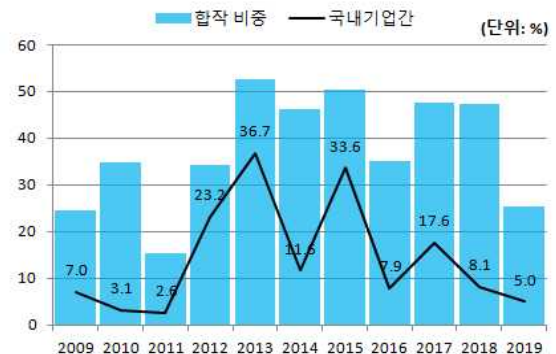
- 2019년 수주액은 125.4억불로 전년 대비 22.6% 감소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소폭 소형화(0.4억불→0.3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8년 47.4%에서 2019년 25.3%로 급감(국내 기업간 합작 비중 역시 8.1%→5.0%로 감소)

- 지난 10년간 아시아지역 수주 추이 -



- 지난 10년간 아시아지역 합작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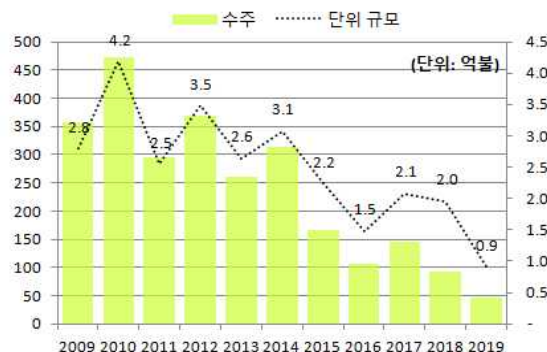


- **(중동)** 중동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0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이나 국내 기업간 합작비중은 2019년에 들어와 급증

- 2019년 수주액은 47.6억불로 전년 대비 48.3% 감소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중소형화 추세(2.0억불→0.9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8년 31.3%에서 2019년 32.7%로 소폭 증가(국내 기업간 합작 비중도 6.1%→27.6%로 급증)

- 지난 10년간 중동지역 수주 추이 -



- 지난 10년간 중동지역 합작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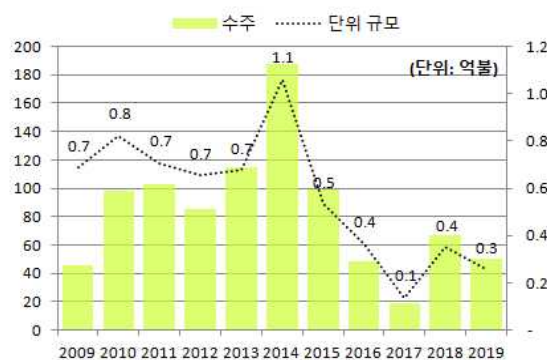
- **(신흥시장)** 신흥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4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이나 국내외기업 합작비중은 2019년에 들어와 급증

- 2019년 수주액은 50.3억불로 전년 대비 25.0% 감소했으며 특히 중남미지역은 61.7%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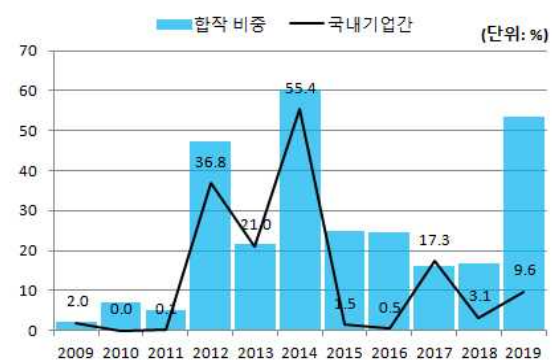
* 전년 대비 북미·태평양 45.6%, 유럽 33.4%, 아프리카 40.3% 감소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8년 16.6%에서 2019년 53.3%로 급증(국내기업간 합작 비중도 3.1%→9.6%로 크게 증가)

- 지난 10년간 신흥지역 수주 추이 -



- 지난 10년간 신흥지역 합작비중 추이 -



- **(특징)** 지역별 수주 정점 시기가 중동 2010년, 아시아 2013년, 신흥시장 2014년으로 지역 다변화는 계속 진행중이며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외국기업과 합작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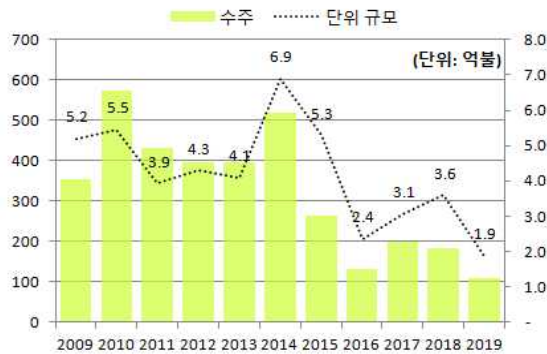
- 특히 중동지역 프로젝트 단위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패턴으로 전환
- 우리기업은 아시아지역에서는 단독진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 기업간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합작패턴으로 전환되었고,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기업과 J/V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3. 공종별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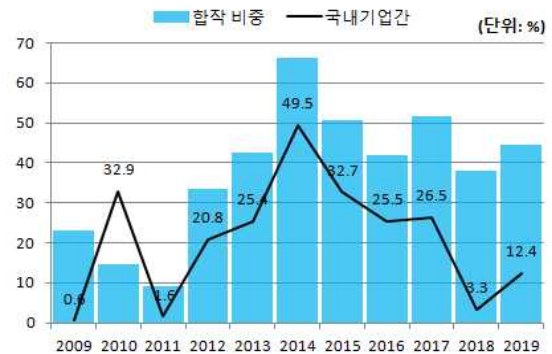
- **(플랜트)** 플랜트 수주는 2010~2014년간 전성기 이후 감소 추세이며 합작비중은 타 공종에 비해 높은 편

- 2019년 수주액은 108.7억불로 전년 대비 40.9% 감소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내실화·중형화 추세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8년 37.9%에서 2019년 44.6%로 증가(국내기업간 합작 비중 역시 3.3%→12.4%로 급증)

- 지난 10년간 플랜트 수주 추이 -



- 지난 10년간 플랜트부문 합작비중 추이 -



- (토목) 토목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3년 이후 정체되었으나 합작비중은 높아지는 추세

- 2019년 수주액은 45.4억불로 전년 대비 36.6% 감소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소폭 소형화 추세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8년 42.6%에서 2019년 28.6%로 급감(국내기업간 합작 비중은 3.4%→4.9%로 소폭 증가)

- 지난 10년간 토목 수주 추이 -



- 지난 10년간 토목부문 합작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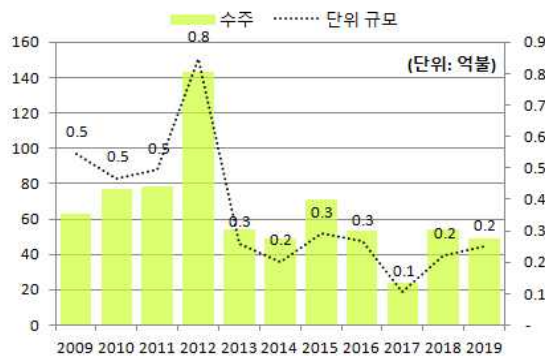
- (건축) 건축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2년 이후 정체되었으며 합작비중은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감소

- 2019년 수주액은 49.1억불로 전년 대비 8.7% 감소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소형화 추세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8년 24.8%에서 2019년 11.3%로 감소(국내기업간 합작 비중 역시 20.7%→11.1%로 급감)

- 지난 10년간 건축 수주 추이 -



- 지난 10년간 건축부문 합작비중 추이 -



- (특징) 최근 토건부문으로 다각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주력부문인 플랜트 공종에서 토건부문에 비해 외국기업과 합작비중이 증가 추세
- 플랜트 단위 프로젝트 규모 역시 2014년 6.9억불에서 2019년 1.9억불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수익성 중심 패턴으로 전환
- 우리기업은 건축부문에서 국내 기업간 합작패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토목 및 플랜트부문에서는 외국 및 현지기업과 J/V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IV.

정책제언

- **(해외공사에 대한 가점부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시 해외공사실적에 대한 한시적인 가점* 부여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진출의 유인 제공 필요
 - * (유사 사례) 해외설계 실적 등에 대한 가점제 시행을 통해 엔지니어링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엔지니어링 경쟁력 향상에 기여('02년 시행, '12년 폐지)
- 해외건설수주는 '14년말 촉발된 국제유가 급락으로 '15년 이후 침체국면* 지속
 - * 660억불('14) → 461억불('15) → 282억불('16) → 290억불('17) → 321억불('18) → 223억불('19)
- 반면, 주택경기 활황으로 국내수주가 확대*되고 건설업계도 선진국 및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 수주경쟁이 극심하고 사업위험성이 높은 해외보다 국내에 집중하려는 기조
 - * 108조('14) → 158조('15) → 165조('16) → 161조('17) → 155조('18) → 157조('19.11월)
- 그러나, 해외건설은 막대한 시장기회(연 11.6조불), 국산기자재 수출, 중소·중견기업 동반진출, 해외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진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중소기업 지원)** 최근 단위 프로젝트 규모가 중·소형화되고 중견 및 중소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이들 기업을 위한 지원책 필요
 - * 대부분 중소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해외건설 용역(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외화가득액은 계약액의 45% 이상(지난 5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 비과세 범위가 용역 전 부문(설계 및 감리뿐만 아니라 기획, F/S, 분석, 조달, 계약, 시공관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으로 확대 요망
- **(도급형 진출지원)**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지원에 힘입어 개발형 수주비중이 크게 증가한 바 있으나 도급형(해외건설수주액의 90% 이상 점유)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 강화 필요 →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지원* 및 범용화**
 - * 3D 프린팅, BIM 등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모듈화를 통한 관리 및 가격 경쟁력 제고
 - ** 국내 관급공사 입찰자격 요건에 스마트기술 활용 등 포함